

여래황신, 비사문천, 변재천, 부동명왕의 상

쇼린지 절의 본존인 자안연명지장 근처에 모셔져 있는 이 상들은 불교와 신도(神道)가 융합된 신앙의 모습(신불습합)을 현재에 전해줍니다. 불교와 신도가 융합된 신앙은 19 세기에 일본 정부가 신불분리령을 내려 불교 사원과 신도 신사의 분리를 명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많은 팔을 가진 부처로 표현된 여래황신은 부처(여래)의 온화한 모습과 불이나 아궁이, 부엌과 관련이 깊은 신도의 신(황신)의 난폭한 성격이 합쳐진 존재입니다. 갑옷을 몸에 두르고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한 비사문천은 네 방향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 중 한 명입니다. 지혜나 음악과 관련이 있는 여신인 변재천은 불교의 신이면서 동시에 신도의 신이기도 합니다. 불꽃 같은 광배를 등 뒤에 두고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동명왕은 불교의 5대 명왕 중 하나로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진언종에서 중요한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